

# 『火器都監儀軌(1615)』의 차자 표기 연구

오 창 명\*

##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火器都監儀軌(1615)』에 대하여
3. 『火器都監儀軌(1615)』의 차자 표기와 해독
4. 마무리

## 1. 들어가는 말

이 글은 무기를 관장하고 있던 火器都監에서 광해군 7년(1615)에 佛狼機, 玄字銃, 三眼銃 등 각종 화약무기를 제작한 과정을 기록한 『火器都監儀軌』의 차자 표기를 해독한 것이다. 무기에 관한 『火器都監儀軌』는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광해군시대 무기에 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이 글은 이 책의 차자 표기를 해독한 것이다. 이 책에는 무기 제작에 사용된 고유어 도구가 차자 표기로 쓰였는데, 현재 확인되는 의궤 중 비교적 이른 시기의 차자 표기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제대로 해독하면 중세 국어 후기와 근대국어 전기에 쓰인 일부 고유어 도구 이름을 재구할 수 있다.

\* 전남대학교 학술연구교수

## 2. 『火器都監儀軌(1615)』에 대하여

『火器都監儀軌』는 1614년(光海君 6)부터 1615년까지 사이에 火器都監에서 大砲를 만들 때의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火器都監儀軌』는 규장각 도서(奎 14596)로 보관되어 있는 1책 73장의 필사본이다. 본래 어람용과 4곳의 사고, 의정부, 예조, 비변사, 춘추관 등 9곳에 비치하거나 보관할 것으로 9건을 만들었는데, 현재 강화부에 분상된 1건만이 남아 있다. 이 책이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 『火器都監儀軌』이다. 책의 크기는 43×33.2cm로, 재질은 홍포이고, 장정은 변철과 박을못 4개로 되어 있다. 책 상단에 불탄 자국이 있고, 첫 부분의 ‘萬曆四十三年五月日 / 火器都監單子’에 ‘都監儀軌九件 成籍 / 御覽, 實錄 4곳, 議政府, 鄙邊사, 春秋館, 禮曹 각 1건 分上’이라는 표현이 있다. 표지에 ‘江’이라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강화부 분상본임을 알 수 있다. 目錄은 없으며, 내용은 圖說·座目·啓辭·稟目·論賞 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圖說’에는 銅鐵로 만든 佛狼機·玄字·百字와 正鐵로 만든 三眼銃·小勝字粧家·快鎗 등이 있다.

1614년(광해군 6년) 7월 14일 入侍時에 大砲를 많이 만드는 것이 防胡의 제일책이라 하여 각처의 閑漫文具之士를 파하고, 鳥銃廳을 火器都監으로 고쳤다.

화기 도감에서는 그 해 7월 21일에 각종 화기를 제작할 재료의 마련 등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火器都監이 아뢰었다. “변란을 겪은 이후로 각종 화기가 모조리 散失된 후에 도감을 설치하여 대포를 주조하고 조총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량이 풍부하지 못하여 각처에 나누어 보내다 보니 이미 비축된 여분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혹시라도 갑작스런 변고가 생긴다면 사용할 것이 없으니 급히 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재료와 工匠의 料布를 준비되는 대로 쓰고 있는 형편이니 반드시 넉넉하게 준비하도록 힘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황해도 白翎鎭에 入番한 수군에서 매달 50명을 뽑아 소금을 굽도록 하는 일을 비변사에 이미 계하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쌓여 있는 소금이 2

천여 석이니 본도 감사가 배를 주어 기한을 정하여 올려 보내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전일 계하한 소금을 굽게 한 수군 50명은 앞으로 솥을 구워 올려 보내게 하십시오. 역사를 시작할 때에, 鐵物工匠의 料米는 호조에서, 價布는 병조에서 각각 마련하도록 하고, 역사를 감독하는 일은 불가불 武班의 宰臣에게 맡겨 완성시키도록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또 문관 낭청과 무신 제조가 없어서는 안 되겠기에 문관 낭청과 비변사의 鳥銃 甸管堂上과 낭청을 전의 계사에 따라 아울러 써서 아뢰입니다.” 하니 그에 따랐다.

〈태백산본 『광해군일기』 6년 7월 신미일〉

이 건의에 따라 화약 무기를 제조하게 되었다. 『火器都監儀軌』의 ‘座目’에 의하면, 都提調에 領議政 奇自獻, 提調에 柳根, 朴承宗, 李尙毅, 李守一, 李慶梁, 都廳에 柳希亮 외 1인, 郎廳은 左邊과 右邊 각 2인으로 되어 있다. 7월 15일 役事를 시작하여 다음해 3월 14일 佛狼機가 완성되는 것을 처음으로 하여, 4월 28일 火器都監의 모든 일을 마쳤다. 1614년 7월 21일의 ‘都監單子’에는 都監應行節目이 들어 있다. 또 1615년 5월 2일의 ‘都監單子’에는 火器都監에서 제조한 火器가 이미 入送한 것과 현재 있는 것으로 나누어 기록되어 있고, 현재 있는 것도 각 道에 보낼 것과 軍器寺에 보관할 것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 또 5월 30일의 ‘都監單子’에는 ‘稟目’이, 5월의 ‘火器都監單子’에는 ‘都監儀軌應行諸事’가 수록되어 있다. 『火器都監儀軌』의 마지막 내용은 1615년 12월 29일에 火器都監의 都提調인 奇自獻 등에게 加資한 내용이 들어 있다.

### 3. 『火器都監儀軌(1615)』의 차자 표기와 해독

먼저 『火器都監儀軌(1615)』에 쓰인 차자 표기 목록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두 표기를 보이고 이어서 物名과 기타 표기를 보인다.

## 吏讀 表記

教[이산/이신], 敎事[이산일/이신일], 敎事是去有等以[이산일이거잇드로], 更良[가시야], 及良[미쳐], 內[내/안], 段[싼/단], 導良[드디여], 岡[오헉], 等段[돌싼], 等乙[돌홀], 等乙良[돌홀안], 良中[아히], 貌如[죽다], 貌如使內爲良如教[죽다브리햐다이산], 捧上[받즈], 捧上爲有如乎[받즈햐잇다온], 捧上爲有在果[받즈햐잇견과], 捧上爲在果[받즈햐견과], 并以[아오로], 並只[다목], 不得爲去乎[모달햐거온], 事[일/스], 使內白[브리슌], 事段[일싼], 事是昆[일이곤], 使內[브리], 使內爲良如教[브리햐다이산], 事是在果[일이견과], 事爲有在果[일햐잇견과], 事乙良置[일을랑두], 上下[차하], 上下爲有臥乎所[차하햐잇누온바], 上下事[차하스], 上下事段[차하스싼], 上項[상항], 是去等[이거든], 是去有等以[이거잇드로], 是去乙[이거늘], 是昆[이곤], 是白昆[이슌곤], 是白有亦[이슌이신이여], 是白有在果[이슌잇견과], 是如[이다], 是如爲良置[이다햐야두], 是如爲臥乎所[이다햐누온바], 是如乎[이다온], 是在果[이견과], 是在如中[이견다히], 是置[이두], 是置有亦[이두이신이여], 是乎新反[이온새려], 是乎矣[이오디], 安徐[안서], 樣以[양오로], 亦[여], 亦爲有如乎[여햐잇다온], 亦爲有在果[여햐잇견과], 唯只[오덕], 爲去乃[햐거나], 爲去等[햐거든], 爲去乙[햐거늘], 爲去乎[햐거온], 爲良如教[햐야다이산], 爲良尔[햐야곰], 爲良置[햐야두], 爲絃[햐며], 爲白去等[햐슌거든], 爲白去乎[햐슌거온], 爲白有如乎[햐슌잇다온], 爲白在果[햐슌견과], 爲白齊[햐슌계], 爲白只爲[햐슌기삼], 爲白乎矣[햐슌오디], 爲如乎[햐다온], 爲臥乎所[햐누온바], 爲有去乙[햐잇거늘], 爲有絃[햐잇며], 爲有臥乎所[햐잇누온바], 爲有如乎[햐잇다온], 爲有在果[햐잇견과], 爲有齊[햐잇계], 爲有置[햐잇두], 爲齊[햐계], 爲只爲[햐기삼], 爲置[햐두], 爲乎矣[햐오디], 乙[을], 乙良[을랑], 乙良置[을랑두], 乙仍于[을지즈루], 這這[ㄹㄹ], 節[디위], 節該[디위히], 除良[더러], 持音絃[지님햐며], 叱分[쑤], 叱分不喻[쑤안디], 次以[츠로], 次知[츠디], 追乎[조초], 頗下事[탈하스], 頗下爲去乎[탈하햐거온]

## 物名 및 其他 表記

加羅[가래/가레], 加乃[가래/가레] / 木加羅[나모가래/나모가레], 木加乃[나모가래/나모가레], 加々[가마], 加叱耳·罷耳[갓귀], 鏢伊[괘이], 擧金[걸쇠], 去乃[걸레], 去乃布[걸레베], 古尾乃[고미레/고미러], 帶金[띠쇠], 大也[다야·대야], 東海[동해] / 陶東海[달동해], 登每[등민], 甫兒[보스] / 茶甫兒[차보스/차보으], 舌金[혀쇠], 所[바] / 三甲所[세갑바] / 條所[오리바], 瓮[독], 羽金[깃쇠], 耳金[귀쇠], 赤々[치마], 柱金[기둥쇠], 挀·注乙[줄], 持乃[지레], 火持乃[불지레/불지레], 次[마음/마음], 浦土[개흙], 汗々赤[뺨마치], 環金[골회쇠/골회쇠] // 巨里[거리], 式[식], 條[오리], 把音[바름] // 匠伊[장이]

이외에도 尺[자], 寸[치], 分[푼], 石[섬], 兩[냥], 錢[돈], 箇[개] 등의 수량단위명사도 확인할 수 있다.

위 목록 중에서 이두 표기의 해독은 하지 않고 物名 및 기타 표기를 해독하고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3.1 加羅[가래/가레], 加乃[가래/가레] // 木加羅[나모가래/나모가래], 木加乃[나모가래/나모가래]

木加羅四 『火器都監儀軌』(21ㄴ)

木加乃七部 『火器都監儀軌』(67ㄴ)

加羅는 ‘가래/가레’의 차자 표기로, 현대국어의 ‘가래(곡식이나 눈 따위를 한곳으로 밀어 모으는 데 쓰는 기구. 넓적한 나무판에 긴 자루를 달았다.)’에 대응하는 것이다. 木加羅도 ‘나모가래/나모가레’의 차자 표기로, 현대국어의 ‘목가래·넉가래’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대국어에서 木

杓을 '나모 가래(木杓 나모 가래<역해 하 8>)'라 한 것을 고려할 때, 본래 '나모 가래'라 하다가 나중에 '목가래'로 형태가 변한 것으로 보인다. 加乃도 '가래/가래'의 차자 표기로, 현대국어 '가래'에 대응하는 표기이다. '가래'는 중세국어에서는 '가래'(木杓 가래<사해 하 85>, 杓 가래 흙<훈몽-중 17> <왜해-하 18>))로 실현되고, 근대국어에서는 '가래'(木楸 가래<동문해-하 16>), '가래(木杓 나모 가래<역해 하 8>)' 등으로 실현되었다. 羅와 乃의 한 자음은 각각 '라'와 '내'이지만 근대국어의 차자 표기에서 '리(木加乃 가리 大 鋪也<행용이문>, 古尾乃 고미리 使之準平穀物者也<행용이문>)' 또는 '니'의 음가자 표기로 쓰였다. 그러나 우리말의 '래' 또는 '레'의 표기로도 쓰였다. 『한국한자어사전』(권2:835)에서는 木加乃를 '나무가래'로 읽고, '나무 가래, 나무로 만든 가래'로 설명했다. 그리고 木加羅는 '나무가라'로 읽고 木加乃와 같은 것이라 했다. 그러나 木加乃나 木加羅는 모두 [나모가래]로 읽고 '나무 가래'라 해야 할 것이다.

### 3.2 加尓[가마]

加尓二 『火器都監儀軌』(21ㄴ)

加尓는 '가마(釜 가마 부<훈몽-중 10> <유합-상 27> <왜해-하 14>)'의 차자 표기로, 가마술을 이른다. 加尓를 음가자로 표기한 것은 『鄉藥集成方』(향약본초, 금부)의 “驢口屎 鄉名加尓五知(가마우지)똥”에서도 볼 수 있다.

### 3.3 加叱耳·靛耳[갓귀]

靛耳五介 『火器都監儀軌』(69ㄴ)

加叱耳·靛耳는 '갓귀'의 차자 표기로, 현대국어의 '까뀌(한 손으로 나무를 찍어 깎는 연장의 하나. 날이 가로로 나 있어 자루와 직각으로 되어 있고, 자귀보다 크기가 작다.)'에 대응하는 것이다. 근대국어 자료에서는 '갓

괴(갓괴와 향괴와/和鎊鏢子<박해-하 11>)' 또는 '각괴(兩刀斧 각괴<한청 10:34>, 鏢 각괴<물보, 공장>)'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加吡耳·韶耳의 표기를 고려할 때 '갓괴'가 '갓귀' 정도로 변했을 때의 표기가 아닌가 한다.

### 3.4 擧金[걸쇠]

擧金十三介 『火器都監儀軌』(69ㄴ)

擧金은 '걸쇠' 또는 '들쇠'의 차자표기인데, 여기서는 '걸쇠'의 차자 표기로 보인다. 처음의 말음 '리'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았다. 말음 '리'을 제대로 반영하면 擧乙金(걸쇠)로 쓰인다. '걸쇠'는 '대문이나 방의 여닫이문을 잠그기 위하여 빗장으로 쓰는 ㄱ자 모양의 쇠 또는 총알을 쏘거나 막을 때 쓰는 걸림 장치' 등을 이르는데, 여기서는 후자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 3.5 去乃[걸레], 去乃布[걸레베]

去乃布二匹 『火器都監儀軌』(21ㄱ)

去乃是 '걸레'의 차자 표기로, 현대국어의 '걸레(더러운 곳을 닦거나 훑쳐 내는 데 쓰는 헝겊.)'에 대응하는 것이다. '걸레'는 근대국어에서도 '걸레(扨扒 걸레<한청 11:40>)'로 쓰였다. 去乃布는 '걸레포'를 표기한 것이라기보다 '걸레베'의 차자 표기로 보인다. 乃의 중근대한자음은 '내(乃 ㅎ야사 내 <유합 상 16>), 乃 사 내<광천 4>'이지만 근대국어시기의 차자 표기에서 '래' 또는 '레', '리' 등의 음가자 표기로도 쓰였다. 다른 자료에서는 擧乙乃·툇乃·擧乃·巨乙乃[걸레] 또는 絳介·惣箇·拘介[굴개], 鬚介[걸개] 등으로도 표기되었다.

### 3.6 古尾乃[고미레/고미리]

古尾乃五柄 『火器都監儀軌』(67ㄴ)

古尾乃是 ‘고미레/고미리’의 차자 표기로, 현대국어의 ‘고무래(곡식을 그 러모으고 펴거나, 밭의 흙을 고르거나 아궁이의 재를 긁어모으는 데에 쓰는 丁 자 모양의 기구. 장방형이나 반달형 또는 사다리꼴의 널조각에 긴 자루 를 박아 만든다.)’에 대응하는 것이다. 근대국어에서 ‘고미레(推扒 고미레 <한청 11:40>, 扒 고미레<물보, 경농>)’ 또는 ‘고미리(古尾乃 고미리 使之 準平穀物者也<행음이문>)’로 실현되었다. 乃是 羅와 같이 ‘리’ 또는 ‘래/레’ 의 음가자 표기로 쓰인 것이다.

### 3.7 鏢伊[과이]

鏢伊二介 『火器都監儀軌』(69ㄴ)

鏢伊는 ‘과이’의 차자 표기로, 현대국어 ‘괘이’에 대응하는 것이다. 근대국 어에서는 ‘광이(鐵鍋 광이<역해 하8>)’ 또는 ‘광히(鑊 광히<물보, 농경>)’로 실현되었는데, 鏢伊는 ‘광이’의 변음으로 추정되는 ‘과이’를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鏢伊는 근대국어의 ‘광이’를 표기한 것으로, 첫음절의 말음 ‘이’를 표 기에서 생략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3.8 帶金[띠쇠]

帶金八介 『火器都監儀軌』(69ㄴ)

帶金은 ‘띠쇠’의 차자 표기로, 현대국어의 ‘띠쇠(두 부채를 잇거나 한 곳 에 달아 늘어뜨리는 띠 모양의 쇠)’에 대응하는 것이다.

### 3.9 大也(다야·대야)

鑿分之·大也各一 『火器都監儀軌』(13ㄴ)

大也는 '다야·대야'의 차자 표기로, 현대국어의 '대야(물을 담아서 얼굴이나 손발 따위를 씻을 때 쓰는 둥글넓적한 그릇.)'에 대응하는 것이다.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 '대야(巨 대야 치<훈몽-중, 12>, 孟子 대야<역해-하, 13>, 盆架 대야 거리<역해-보, 43>)' 또는 '다야(다야 爲匣<훈해, 용자>, 孟 다야우<훈몽-중 19>, 鏝다야 선<왜해-하, 14>, 孟曰大耶<계류>)'로 실현되었다.

### 3.10 東海(동희), 陶東海(달동희)

中瓮二 陶東海四 『火器都監儀軌』(24ㄴ)

東海는 '동희(盆 동희 분<유합 상 27><왜해 하 14>)'의 차자 표기로, 현대국어의 '동이(질그릇의 하나. 흔히 물 길는 데 쓰는 것으로써 보통 둥글고 배가 부르고 아가리가 넓으며 양옆으로 손잡이가 달려 있다.)'에 대응한다. 陶東海는 '달동희'의 차자 표기로, 질그릇으로 만든 동이를 이른다. 陶는 '달(陶 달그릇 도<자류 上 60>)'의 훈독자 표기이고, 東과 海는 각각 '동'과 '희'의 음가자 표기이다.

### 3.11 登每(등미)

登每五坐 『火器都監儀軌』(7월22일, 13ㄴ)

登每는 '등미'의 차자 표기로, 현대국어의 '등메(형겘으로 가장자리 선을 두르고 뒤에 부들자리를 대서 꾸민 돛자리)'에 대응하는 것이다. 근대국어에서 '등미(登每 등미<행이>)' 또는 '등미(딛들에 잘잇 등미 사오 저 장스야<고시조, 해요>/宅들에 잘리 登每 | 사오 저 장새야<고시조, 청구>)' 등으로

실현되었다.

### 3.12 甫兒(보스/보으), 茶甫兒(차보스/차보으)

茶甫兒臺具 三 『火器都監儀軌』(13ㄴ)

甫兒는 ‘보스/보으’의 차자 표기로, 현대국어의 ‘보시기(김치나 깍두기 따위를 담은 반찬 그릇의 하나. 모양은 사발 같으나 높이가 낮고 크기가 작다.)’에 대응하는 것이다. 현대국어에서는 ‘보시기’를 인정하지만, 경상도와 제주도 방언에서는 ‘보시’가 쓰이고 있다. 중세국어에서 ‘보스(보스/椀<구간상 34> 보스/碗<군간 6:32>, 甌 보스 구<훈몽-중 12>)’로 실현되었는데 ‘보으(보으/甌<벽신 2>, 甌子 보으<역해 하 13>)’로 변화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 ‘보시’ 또는 ‘보시기’로 남아 있으므로 ‘보스’에서 ‘보시’로 변한 형태가 우세하게 남은 것으로 보인다. 현대국어 사전에 ‘보아(甫兒)’를 ‘보시기’와 같은 것이라 했는데, 甫兒는 ‘보스’의 차자 표기인 것이다. 표기 兒는 ‘스(兒 아히 슨<훈몽 상32>, <유합 상 17>)’ 또는 ‘으(兒 아히 으<석천 15>)’의 음가자로 쓰인 것이다. 茶甫兒는 ‘차보스/차보으’의 차자 표기로, 현대국어의 ‘차보시기(茶—: 찻물을 따라 마시는 보시기)’에 대응하는 것이다.

### 3.13 舌金(혀쇠)

舌金四介 『火器都監儀軌』(69ㄴ)

舌金은 ‘혀쇠’의 차자 표기로 보인다. ‘혀쇠’는 흔들면 소리가 나도록 요령 안에 매어 다는 쇠 또는 총구 따위의 안에 다는 쇠를 이른다.

### 3.14 所(마), 三甲所(세겍마), 條所(오리마)

熟麻三甲所各十把音式 三十二巨里 『火器都監儀軌』(21ㄱ)

條所十二巨里 『火器都監儀軌』(54ㄱ)

所는 '바'의 차자 표기로, 현대국어의 '바(=참바. 삼이나 칠 따위로 세 가닥을 지어 굵다랗게 드린 줄.)'에 대응한다. 三甲所는 '세겹바'의 차자 표기로, 세 겹으로 짠 바를 이른다. 條所는 '오리바'의 차자 표기로, '오리(실 따위의 가늘고 긴 조각)로 만든 바'를 이른다.

### 3.15 瓮[독]

中瓮二 陶東海四 『火器都監儀軌』(24ㄴ)

瓮은 '독'의 차자 표기이다.

### 3.16 羽金[깃쇠]

羽金七十七介 『火器都監儀軌』(69ㄴ)

羽金은 '깃쇠'의 차자 표기로, 깃 모양으로 다는 쇠를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 3.17 耳金[귀쇠]

耳金三十介 『火器都監儀軌』(69ㄴ)

耳金은 '귀쇠'의 차자 표기로, 현대국어의 '귀쇠'에 대응하는 것이다. '귀쇠'는 '세간이나 기구 따위의 사개를 맞추거나 부분품을 짜 맞출 때에 모서리에 대는 쇠조각 또는 장식의 하나로, ㄱ 자 모양의 얇고 넓은 쇠조각의 두 끝을 안쪽으로 두 번 꺾인 곡형으로 오려 내고 가로와 세로의 두 면에 '귀'

자 모양을 새긴 쇠, 또는 너트와 같은 부품들의 한쪽 모서리에 나온 쇠, 귀 통이를 박는 쇠' 등을 이른다.

### 3.18 赤尔[치마]

赤尔次布子四十尺 『火器都監儀軌』(21ㄴ)

赤尔는 '치마(褌 치마 군 裳 치마 상<유합-상 31>)'의 차자 표기로, '여자의 아랫도리 겹옷이나 조복, 제복 따위의 아래에 덧 두르는 옷'을 이른다. 赤尔 치마 裳也 尔皆作尔北路<행용이문>. '치마'는 赤尔뿐 아니라 赤麻(『중종실록』 29년 11월 정해), 赤수(赤수 치마 裳也<행용이문>) 등으로도 표기되었다.

### 3.19 柱金[기동쇠]

柱金四介 『火器都監儀軌』(69ㄴ)

柱金은 '기동쇠'의 차자 표기로 보인다. 기동으로 쓰는 쇠를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 3.20 𦉰·注乙[줄]

注乙三十介 『火器都監儀軌』(69ㄴ)

𦉰·注乙은 '줄'의 차자 표기로, 현대국어의 '줄'에 대응한다. '줄'은 '노, 새끼 따위와 같이 무엇을 묶거나 동이는 데에 쓸 수 있는 가늘고 긴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또는 쇠붙이를 쓸거나 깎는 데에 쓰는, 강철로 만든 연장(줄칼)' 등을 이른다. 여기서서는 후자를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도 ‘줄’로 실현되었다.

### 3.21 持乃(지레), 火持乃(불지레)불지레)

火持乃二介 『火器都監儀軌』(69ㄴ)

持乃是 ‘지레’의 차자 표기이지만, 유사음 ‘지레(지렛대)’의 표기로 쓰인 것이다. 千斤子 지레<역해보 45>. 火持乃是 ‘불지레’의 차자 표기로, 불 속에서 쓰는 지렛대를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부지깽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純元王后國葬都監儀軌』(4, 별공작, 조작)에서는 火支乃(불지레)로, 『樂器造成廳儀軌』(용후환하질)에서는 火地乃(불지레)로, 『度支準折』(타철)에서는 火指乃(불지레)로 표기되었다.

### 3.22 次(ㄹ음/ㄹ음)

赤尔次布子四十尺 『火器都監儀軌』(21ㄴ)

次는 ‘ㄹ슴’ㄹ음’의 차자 표기로, 현대국어의 ‘감(옷이나 이불 따위를 만드는 바탕이 되는 피륙. 주로 옷감의 뜻으로 쓴다.)’에 대응하는 것이다.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 ‘ㄹ슴(次 ㄹ슴 次<광천 16>)’, ‘ㄹ음(次 ㄹ음 次<유합 상 3>, <석천 16>)’, ‘ㄹ음(ㄹ음/料<박신해 1:16>)’ 등으로 실현되었으나, 제주방언에서는 ‘ㄹ슴’이 여전히 쓰이고 있다.

### 3.23 浦土(개흙)

機匠所用浦土黃土各三十駄式當日內輸入事 『火器都監儀軌』(52ㄱ)

浦土는 ‘개흙’의 차자 표기로, 현대국어의 ‘개흙’(갯바닥이나 늪 바닥에 있

는 거무스름하고 미끈미끈한 고운 흙 또는 진흙. 개흙은 유기물이 뒤섞여 있어 거름으로도 쓴다.)에 대응한다.

### 3.24 汗尔赤(뺨마치)

汗尔赤十二介 『火器都監儀軌』(69ㄴ)

汗尔赤은 '뺨마치'의 차자 표기로, 뺨질용 마치를 이른다. 『한국한자어사전』(권3: 94)에서는 汗尔赤을 '한마치'의 차자어라 하고, '크기가 보통보다 큰 마치'라고 설명했는데, 해독과 설명이 모두 잘못되었다.

### 3.25 環金(골회쇠/골회쇠)

環金五介 『火器都監儀軌』(69ㄴ)

環金은 '골회쇠/골회쇠'의 차자 표기로, 고리 모양으로 만든 쇠를 이른다. 環은 '골회(環 골회 환<훈몽-중 24><유합 상 3><석천 41>)/골회(環 골회 환<왜해-하 16>, 環子 골회<동문해-하 17>)'의 훈독자 표기이다.

### 3.26 巨尔釘(거덜못)

巨尔釘六十四介 『火器都監儀軌』(67ㄴ)

巨尔釘은 '거덜못/거덜못'의 차자 표기로 보인다. 다른 자료에서는 주로 巨勿釘(거덜못/거덜못)으로 표기된다. '거덜못(巴錫子 거덜못<동문해 하 17>, <錫子 거덜못<한청 10:38>)'은 '어떤 물건의 터지거나 벌어진 곳. 또는 벌어질 염려가 있는 곳에 거덜장처럼 겹쳐서 박는 못'을 이른다.

### 3.27 召伊[조이?], 召伊軍[조이군?]

右甘結 三眼鏡刻字次以 召伊軍四名 限三日定送事 『火器都監儀軌』(36ㄱ-ㄴ)

召伊는 '조이', 召伊軍은 '조이군'의 차자 표기로 보이는데,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다만 다음 예문으로 볼 때 삼안총 따위에 각자(刻字)하는 사람을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 뜻이 맞다면 召伊는 '조리', 召伊軍은 '조리꾼' 정도의 뜻을 가진 말이 아닌가 한다.

### 3.28 撐介[탱개]

機匠所用撐介木次眞長木三介等上下進排事 『火器都監儀軌』(52ㄱ)

撐介는 '탱개'의 차자 표기로, 현대국어 '탱개'(물건의 동인 줄을 죄는 물건. 동인 줄의 중간에 비너장을 질러서 틀어 넘기면 줄이 줄어들게 된다.)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 3.29 巨里[거리]

熟麻 三甲所各十把音式三十二巨里 『火器都監儀軌』(21ㄱ)

條所十二巨里 『火器都監儀軌』(54ㄱ)

巨里는 '거리'의 차자 표기로, 현대국어의 '거리(끈·새끼·철사 따위의 길이를 헤아릴 때, 열 발을 단위로 이르는 말.)'에 대응한다.

### 3.30 式[식]

熟麻 三甲所各十把音式三十二巨里 『火器都監儀軌』(21ㄱ)

式은 '식'의 차자 표기로, 현대국어의 접사 '-씩'(<수량을 나타내는 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붙어> '그 수량이나 크기로 나뉘거나 되풀이됨'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에 대응하는 것이다.

### 3.31 條(오리)

中藥線半條 『火器都監儀軌』(2ㄴ)

條는 '오리'의 차자 표기로, 현대국어의 '오리'(<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실, 나무, 대 따위의 가늘고 긴 조각을 세는 단위)에 대응하는 것이다. 條는 '오리(條 오리 ㄷ<왜해-하 39>)'의 훈독자 표기이다.

### 3.32 把音(바름?)

熟麻三甲所各十把音式三十二巨里 『火器都監儀軌』(21ㄱ)

熟麻三甲所十六巨里二把音 『火器都監儀軌』(68ㄴ)

把音은 '바름' 정도의 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확실하지 않다. 특히 把音은 예문과 같이 所[바]를 세는 단위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33 匠伊(장이)

蹄厥匠伊 許弄孫 『火器都監儀軌』(71ㄱ)

匠伊는 '장이'의 차자 표기로, 현대국어의 '장이'(<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에 대응하는 것이다. 獵戶 산장이<동문해-상 13>.

다음 두 어휘도 물명 표기로 보이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과제로 남겨둔다.

分之(분지): 鎡分之·大也各一 『火器都監儀軌』(13ㄴ)

作塊鐵(작괴쇠): 作塊鐵二千五百六十斤 『火器都監儀軌』(67ㄴ)

#### 4. 마무리

이 글은 1615년에 쓰인 <화기도감의궤>에 나타나는 한자 차용 표기의 목록을 정리하고 그것을 해독하여 설명한 글이다. 110여 개의 이두 표기 목록과 40여 개의 물명 및 기타 차자 표기 어휘 목록을 확인한 것 중에서 물명 또는 기타 어휘 33개를 해독하고 2개의 어휘는 미해독하여 과제로 남겨 놓았다.

이 글에서 해독하여 설명한 차자 표기를 정리하면서 글을 마치도록 한다.

加羅[가래/가래], 加乃[가래/가래] / 木加羅[나모가래/나모가래], 木加乃[나모가래/나모가래], 加尔[가마], 加叱耳·罷耳[갓귀], 鏢伊[괘이], 擧金[걸쇠], 去乃[걸레], 古尾乃[고미레/고미리], 帶金[띠쇠], 大也[다야·대야], 東海[동해] / 陶東海[달동해], 登每[등미], 甫兒[보스] / 茶甫兒[차보스/차보으], 舌金[혀쇠], 所[바] / 三甲所[세검바] / 條所[오리바], 瓮[독], 羽金[깃쇠], 耳金[귀쇠], 赤尔[치마], 柱金[기둥쇠], 泔·注乙[줄], 持乃[지레], 火持乃[불지레]불지레, 次[마음/마음], 補土[개흙], 汗尔赤[땀마치], 環金[골회쇠/골회쇠] // 巨里[거리], 式[식], 條[오리], 把音[바름] // 匠伊[장이]

- 핵심어: 의궤, 차자 표기, 차자 표기 해독, 한자 차용 표기, 화기도감의궤, 화기도감

<Abstract>

A Study on the Borrowed Writings of the <Hwagi-dogam-ugwe>

Oh Chang-myeong

This study aims at pointing of deciphering the <Hwagi-dogam-ugwe>. <Hwagi-dogam-ugwe> is wrote at 1615. The transcribing korean words into chinese characters appears in this book. It arranged the list of the transcribing korean words into chinese characters which appears in this book and decipher the writing it.

- Key Words: transcribing Korean words into Chinese characters, the borrowed writings:Yidu, transliterating some Korean paticles into Chinese charcters, Hagwi-dogam-ugwe, ugwe